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효과 분석

- 실무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정다미* · 박지현**

<요 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 실무자를 설문조사하여 2011년 공기업과 2013년 준정부기관에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발생한 다양한 변화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총 110개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관련 실무자들은 대체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관련 실무자들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속성 중에서도 특히 K-IFRS 도입 이후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회계 투명성, 기관 상호간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K-IFRS 도입 초기 회계 전문인력 부족과 도입 준비기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공시 증가로 인한 업무량 가중을 꼽았다.

본 연구는 주로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주거반응분석을 통해 K-IFRS 회계정보의 질적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K-IFRS 도입효과를 분석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실무자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6년여가 지난 정착화 시점에서의 연구라는 점,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 중간관리자와 하위관리자로 구분한 추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점은 큰 차별성이 있다.

〈주제어〉 국제회계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tmchung@mju.ac.kr, 주저자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팀장, 경영학박사, parkjh@gssi.or.kr, 교신저자

I. 서 론

정부는 공공기관¹⁾ 중 공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을 적용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2년의 시차를 두고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당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과 동 규칙에 의해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칙이나 기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K-GAAP)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K-GAAP이 적용되어 왔다.

한편 2009. 6. 17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도 기업회계기준의 이원화 체계에 대응하여 국제회계기준, 비상장회계기준 적용 준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된 관리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도 해외 사업수행 및 자금조달 등을 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²⁾도 정부기업체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권고하였고 해외 공공기관은 기 적용 혹은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6.17.)—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결국 적용시기의 문제일 뿐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이므로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 이후 공공기관 간에 비교가능성이 향상되어 공공기관 관리측면에서도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IFRS 도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설립취지 및 운영목적상 민간기업과는 달리 자본시장에 접근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공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은 자체수입원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323개로 공기업 30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개), 준정부기관 90개(기금관리형 16개, 위탁집행형 74개), 기타공공기관 203개로 구분된다.

2) IPSAS :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기관의 K-IFRS 도입 관련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업에 K-IFRS를 도입한 지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K-IFRS 도입으로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정부가 K-IFRS 도입 결정 이후 도입효과로 주장했던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도입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른 현 시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실무자들이 느끼는 개선 또는 보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영성과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까지 K-IFRS 도입을 확대하여 추진³⁾ 중인 점도 시기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K-IFRS 도입 이후 실무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K-IFRS에 대한 인식의 변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변화, 실무자들이 K-IFRS를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다. 특히 회계 관련 실무자들이 K-IFRS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지를 K-IFRS 도입을 전·후하여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K-IFRS 도입 이후 목적적합성(relevance), 충실한 표현(faithful representation),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적시성(timeliness),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으로 대표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qualitative characteristics)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K-IFRS 도입효과를 알아본 기존의 연구(국회예산정책처 2014; 고윤성·이현아 2016)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들의 연구는 공공기관의 K-IFRS 도입 효과를 주로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K-IFRS의 도입 이전 준비기간, 도입비용, 도입 직후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설문내용과 연구방법 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내용에서 회계정보의 어떠한 질적 특성이 변화되었는지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선행연구들은 K-IFRS 적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원가의 종류와 강도를 알아보는 설문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이해가능성과 충실한 표현(일부 논문에서는 투명성)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해가능성과 충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목적적합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중요성에 이르는 모든 질적 특성이 각각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K-IFRS가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K-

3) 당초 지방공기업도 K-IFRS 도입계획을 마련(2014년 1월)하고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는 2016년부터, 기타공사는 2017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방공기업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2016.1.19), 지방공기업의 K-IFRS 전면 도입계획을 보류하고, 필요시 기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IFRS 도입 효과를 알아보는 데 좀 더 적합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제도의 정착 시점(공기업 6년차, 준정부기관 4년차)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이 실질적인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작성자 측면의 회계부서와 실질적인 사용자 측면의 비회계부서 그리고 중간관리자와 하위관리자로 구분하여,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생산자와 이용자 간, 직위 간 차이가 있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그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K-IFRS 도입효과를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측정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수조사 했으며,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 회계업무 실무자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회계제도 감독당국,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으로의 K-IFRS 확대를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

1. IFRS 도입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미리 도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본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최대규·이동연(2008)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IV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 조항만 규정하고 이외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공공기관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의거 K-IFRS를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안진회계법인(2009)은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IFRS 도입효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IFRS를 도입함으로써 회계투명성 강화에 따른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둘째 재무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증대로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자금 조달능력 확대, 셋째 IFRS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도 선진국 수준의 공공기관 관리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104개 기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IFRS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33개 기관(33%)이며, 이유로는 해외 자금조달에 유리, 회계투명성 제고, 공기업회계제도 선진화, 국제간 비교가능성 증대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계량지표 평가방법에 따라 영향이 상이해짐에 따라 기관별 특수성 및 사안을

고려하여 재계산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별적인 해결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지인(2010)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정부, 공공기관, IFRS 도입자문단, 참여 회계법인 등의 공동노력이 요구되는데, 우선 공공기관은 IFRS 도입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는 IFRS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제도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FRS 도입자문단은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 문제점과 이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과 IFRS 동향정보 등 교육을 통한 전달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IFRS 도입방안 발표 이후, 특정기관의 도입사례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본 연구도 일부 있었는데, 박연희 외(2013)는 준정부기관 중 A공단⁴⁾의 IFRS 도입준비 사례를 살펴보았다. A공단이 IFRS를 도입할 경우 공단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부문, 24개 항목별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A공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과 채택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K-IFRS를 도입했을 때 A공단은 재무제표의 유·무형 자산 9개 항목, 금융상품 4개 항목, 연결 및 표시공시 5개 항목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준정부기관의 성공적인 K-IFRS 도입 방안으로 상각단위 세분화 검토 프로세스, 손상검토 프로세스, 공정가치 평가 프로세스, 비유동자산 매각예정분류 기준 프로세스 등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정성호(2013)는 2011년 K-IFRS를 도입한 26개 공기업이 기존 K-GAAP과 K-IFRS로 작성한 경영공시지표(요약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K-IFRS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재무상태 영향분석 결과 K-IFRS 도입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총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금, 총자본이 증가하였다. 다음 경영성과 영향분석 결과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매출,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재무비율 영향분석 결과로는 부채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유동비율, 총자산이익률은 감소하였다. 끝으로 경영평가 등 기타사항 영향분석 결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재무정보 단절과 다양한 회계처리방법 선택에 따른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K-IFRS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K-IFRS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의도한 효과(회계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는 준정부기관에 비해 공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기관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뿐, 대다수 기관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업무상 혼란만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4) A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특성상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 정부에서 도입 전 설명하였던 K-IFRS 도입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Trewavas et al.(2012)은 IFRS 채택이 뉴질랜드 공공부문 단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자산과 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소 증가하였고, 공공부문의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자기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주원인으로 공공부문 중 공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의 재측정(IAS 12) 뿐만 아니라, 다수 공공부문의 경우 종업원 급여(IAS 19) 및 파생금융상품(IAS 39)의 회계처리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IFRS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영향을 공공부문에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IFRS 도입과 관련한 실무자 인식(설문조사) 연구

김문철 외(2006)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기업 회계담당자, 회계학 교수, 재무분석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는데,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 74.6%가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찬성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79.6%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기준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다수 국내 회계전문가의 경우 IFRS의 전면수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무제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IFRS 적용으로 회계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제시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은 공공기관의 IFRS 도입영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IFRS를 도입한 공기업의 담당자(경영평가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와 IFRS 도입을 자문한 담당회계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IFRS 도입의 장점은 “공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단점으로는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IFRS 도입 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는 “감가상각 관련(상각방법, 내용연수 등) 이슈”라는 응답이, 도입의 성공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기업 내부구성원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경영진 의지 포함)”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도입 시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IFRS 도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IFRS 도입이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설문결과는 공기업 부서 간 또는 공기업과 담당회계사 간에 조금 다른 응답을

보였으며⁵⁾, 이러한 결과는 설문대상을 폭넓게 정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박성환 외(2015)는 IFRS의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실무자의 기대감을 조사하고, 실무자 인식과 측정지표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실무자 인식 연구결과, 실무자들은 IFRS를 도입할 경우 주요 재무제표 항목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실무자들은 회계 및 감사실무와 관련된 지표들에서는 유의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FRS 도입으로 인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무자 인식과 측정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주요 재무제표 항목에서 실무자의 인식과 실제 측정지표 사이에 전반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윤성·이현아(2016)는 30개 공기업과 증화추출법으로 선별한 30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연도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설문조사하였다. 먼저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상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의 영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반면, 준정부기관은 재무상황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계담당자 설문분석 결과로는 K-IFRS 적용 문제점으로 준정부기관 연결재무제표 작성, 소규모 준정부기관 업무혼란 및 비용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의 K-IFRS 도입을 앞둔 시점에는 공공기관의 재무적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공공기관 K-IFRS 도입 이후에는 일부 재무제표 항목의 분석을 통한 재무정보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설립 특성상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변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의 회계실무자 인식조사를 통해 정부가 주도한 K-IFRS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5) 실제로 IFRS 도입의 단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 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및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IFRS 도입 시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적으로는 “IFRS 도입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회계부서의 경우 “회계전문 내부인력의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는 국내 323개 공공기관 중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한 30개 공기업과 2013년부터 적용한 90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중 2016년 새롭게 지정 또는 유형이 변경된 4개 기관⁶⁾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IFRS를 적용하지 않는 6개 기관⁷⁾을 제외하고 80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이 총 11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설문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1> 표본의 공공기관 유형별 구성과 설문회수 현황

구 분	합 계	공 기 업		준정부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표본기업수	110개	14개	16개	10개	70개
회수설문지	87부	7부	16부	1부	63부

설문조사는 2016년 8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21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서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결과는 이메일(설문지를 스캔하여 회신)과 우편으로 총 87부를 회수(회수율 79%)하여 통계분석 처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장형 공기업 7부, 준시장형 공기업 16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3부이다.

2.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category)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K-IFRS 도입 전·후의 인식변화에 관한 질문으로 IFRS 도입 전·후로 느낀 인식과 도입 초기 어려웠던 점,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질의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는 K-IFRS 도입에 따른 효과 및 영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회계정보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6) 2016년도 지정된 90개 준정부기관 중, 당해연도에 새롭게 지정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1개 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일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IFRS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2016년 현재 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6개 기관(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를 알아보고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⁸⁾ 및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⁹⁾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형식으로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카테고리별 설문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설문내용 및 이론적 배경

구 분	설문내용	이론적 배경
K-IFRS 도입 전·후의 인식변화	1-1. 과거 공공기관 K-IFRS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 귀하의 생각은?	
	1-2. K-IFRS를 직접 경험한 현재에 과거 도입 전의 생각과 비교하면?	
	1-3. K-IFRS 도입 시(또는 도입 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복수응답 가능)	
	1-4. K-IFRS 도입 이후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복수응답 가능)	
	1-5. K-IFRS 도입 이후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복수응답 가능)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변화	2-1.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내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게 작성되는가?	재무보고의 목적(유용성)
	2-2.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외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게 작성되는가?	
	2-3.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이전에 비해 숨김과 편의가 없이 좀 더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달하는가?	회계정보의 충실한 표현(신뢰성)
	2-4. K-IFRS 도입 이후 동종 또는 유사 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는가?	정보의 비교가능성 (기관 간, 기간별)
	2-5. K-IFRS 도입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는가?	
	2-6.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되는가?	회계정보의 적시성
	2-7. K-IFRS 도입 이후 기관에서 작성된 회계정보를 외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8) 우리나라는 2003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재무회계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of Financial Accounting)’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념체계는 기업실체의 재무보고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9)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속성으로 회계정보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표 2〉 연구 설문내용 및 이론적 배경 (계속)

구 분	설문내용	이론적 배경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변화	2-8.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처리 재량권이 증대되었는가?	원가 제약 (원가·효익), 중요성 고려
	2-9. K-IFRS 도입이 기관의 회계정보 처리에 관련된 관리 비용을 증가시켰는가?	
	2-10. K-IFRS 도입이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는가?	
	2-11. K-IFRS 도입이 공시횟수와 양(量)의 증가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량을 증가시켰는가?	
	2-12. K-IFRS 도입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었는가?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의 신뢰성 분석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응답자 기관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업무분야 등 모두 7가지 문항의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따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기관유형	공기업(시장형)	7	8.0	직위	대리급 이하	52	59.8
	공기업(준시장형)	16	18.4		팀(과)장급	30	34.5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	1.1		부(실)장급	5	5.7
	준정부기관(위탁관리형)	63	72.4	근무기간	5년 미만	40	46.0
성별	남자	47	54.0		5년~10년	21	24.1
	여자	40	46.0		11년~15년	16	18.4
연령	30세 미만	14	16.1		16년~20년	5	5.7
	30대	42	48.3		21년 이상	5	5.7
	40대	28	32.2	업무분야	회계	58	66.7
	50세 이상	3	3.4		재무	15	17.2
학력	전문학사 이하	9	10.3		예산	8	9.2
	학사	57	65.5		평가/감사	3	3.4
	석사	18	20.7		기타	3	3.4
	박사	3	3.4				

한편 측정의 신뢰성이란 측정도구, 다시 말해 척도의 일관성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 내용 중 K-IFRS 도입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2번째 카테고리, 즉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총 12개 설문 문항들 간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¹⁰⁾를 이용한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는 여러 가지 측정항목으로 어떠한 개념을 측정할 때 항목 간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계수로써 측정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그 수치가 높아진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부터 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7 이상(일부 문헌에서는 0.6 이상)이면 측정항목들 간에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 측정을 위해 먼저 설문 문항이 갖는 질문방향을 동일하게 맞추었다. 12개 설문 문항의 질문내용이 대부분 긍정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문항의 질문들은 부정적 나타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설문결과 값을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는데, 역코딩한 문항은 2-7, 2-9, 2-10, 2-11 등 4개 문항이다. 본 연구의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관련된 설문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12개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37로 신뢰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K-IFRS 도입 전·후 실무자 인식변화 분석

먼저,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K-IFRS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31.0%, “부정적” 11.5%, “매우 긍정적” 8.1%, “매우 부정적”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경우 과거 K-IFRS 도입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13.8%)이 아닌 긍정적(55.2%)인 시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은 “긍정적” 43.5%, “부정적” 26.1%, “그저 그렇다” 21.7% 순이었으며, 준정부기관은 “긍정적” 48.4%, “그저 그렇다” 34.4%, “매우 긍정적” 7.8% 순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준정부기관 집단에서 좀 더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Cronbach Alpha는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클수록, 항목별 분산의 차이가 작을수록 더 크게 계산된다.

〈표 4〉 공공기관 K-IFRS 도입결정에 대한 실무자 의견

(단위 : %)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그저 그렇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8.1	47.1	31.0	11.5	2.3
공 기 업	8.7	43.5	21.7	26.1	—
준정부기관	7.8	48.4	34.4	6.3	3.1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과거 공공기관에 K-IFRS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 느꼈던 생각과 현재 K-IFRS를 직접 경험한 이후에 느끼고 있는 K-IFRS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응답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응답은 과거 도입 결정시의 생각과 동일하게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33.3%, “부정적” 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회계실무자들의 생각이 유사하며, 새로운 기준을 긍정적(51.7%)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응답 순서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공기업 집단의 경우 K-IFRS 도입 이전 긍정적 의견이 52.2%에서 도입 이후 56.5%로 증가했으며, 부정적 의견은 도입 이전 26.1%에서 17.4%로 감소하였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K-IFRS 도입 이전에는 긍정적 의견이 56.2%였으나 도입 이후 50.0%로 감소하였고, 부정적 의견은 도입 이전 9.4%에서 14.1%로 증가하였다. 한편 K-IFRS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생각이 변화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4.5%로 이 중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응답자는 33.3%인데 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응답자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집단으로 구분하면, 공기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응답자가 55.6%로 부정적으로 변화된 응답자(44.4%)에 비해 조금 더 많았으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된 응답자가 23.8%인데 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응답자가 7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공기업의 경우 K-IFRS를 도입결정 시점에서보다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준정부기관은 K-IFRS 도입결정 시점보다 현재 시점에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표 6>의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초기 업무를 담당할 회계 전문인력과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현재 시점의 조사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 K-IFRS 도입 전과 현재의 생각을 비교한 실무자 의견

(단위 : %)

구 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그저 그렇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
계	4.6	47.1	33.3	13.8	1.1
공 기 업	4.3	52.2	26.1	17.4	—
준정부기관	4.7	45.3	35.9	12.5	1.6

세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K-IFRS 도입 시(또는 도입 초기)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에 대한 질문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8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에 따르면 K-IFRS 도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회계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다음으로 “도입 준비기간 부족”(23.2%), “내부규정 정비 미비”(16.7%), “경영진 및 내부직원 무관심”(13.6%), “초기 도입비용 부담”(13.1%), “기타(변화에의 대응)”(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은 “회계 전문인력 부족”(30.4%), “도입 준비기간 부족”(21.4%), “초기 도입비용 부담”(17.9%), “내부규정 정비 미비”(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준정부기관은 “회계 전문인력 부족”(33.8%), “도입 준비기간 부족”(23.9%), “내부규정 정비 미비”(16.9%), “경영진 및 내부직원 무관심”(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정부기관에 비해 규모가 거대한 공기업에서 K-IFRS 도입을 위한 초기 도입비용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K-IFRS 도입 시(도입 초기) 문제점

(단위 : %)

구 분	도입 준비기간 부족	초기 도입비용 부담	내부규정 정비 미비	회계 전문인력 부족	경영진 및 내부직원 무관심	기타
계	23.2	13.1	16.7	32.8	13.6	0.5
공 기 업	21.4	17.9	16.1	30.4	14.3	—
준정부기관	23.9	11.3	16.9	33.8	13.4	0.7

네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K-IFRS 도입 이후 느끼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과 동일하게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총 163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공기관의 회계실무자들은 “재무정보의 유용성 증가(회계정보의 질 향상)”(30.7%)을 K-IFRS 도입 이후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회계 투명성 향상”(27.0%), “기관 상호간 비교가능성 증가”(25.2%), “회계처리 재량권 증대”(9.2%),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7.4%), “기타(회계부서의 중요성 향상)”(0.6%)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할 경우, 공기업은 “재무정보의 유용성 증가”(33.3%), “기관 상호간 비교

가능성 증가”(28.6%), “회계 투명성 향상”(19.0%), “회계처리 재량권 증대”(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재무정보의 유용성 증가(29.8%)”와 “회계 투명성 향상”(29.8%)이 동일하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관 상호간 비교가능성 증가”(24.0%),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9.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는 K-IFRS 도입을 통해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기관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함에 따라 당초 정부의 K-IFRS 도입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K-IFRS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

(단위 : %)

구 분	회계투명성 향상	재무정보 유용성 증가	기관 간 비교가능성 증가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제고	회계처리 재량권 증대	기타
계	27.0	30.7	25.2	7.4	9.2	0.6
공 기 업	19.0	33.3	28.6	2.4	16.7	—
준정부기관	29.8	29.8	24.0	9.1	6.6	0.8

첫 번째 카테고리의 마지막 질문으로 공공기관에서 K-IFRS 도입 이후 느끼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역시 복수응답을 통해 총 195건의 응답을 구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공공기관들은 K-IFRS 도입 이후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33.8%)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공시량 증가로 업무 가중”(27.2%),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 저하”(17.9%), “과다한 도입비용”(12.3%), “외부감사인 감사보수 증가”(8.2%), “기타(종전 보다 불편)”(0.5%)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응답순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8〉 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

(단위 : %)

구 분	과다한 도입비용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공시량 증가로 업무 가중	과거 정보와 비교가능성 저하	외부감사인 감사보수 증가	기타
계	12.3	33.8	27.2	17.9	8.2	0.5
공 기 업	11.8	33.3	29.4	17.6	7.8	—
준정부기관	12.5	34.0	26.4	18.1	8.3	0.7

첫 번째 카테고리인 K-IFRS 도입 전·후의 실무자 인식변화 등에 관한 질문의 응답을 정리하면 현재 공공기관들은 K-IFRS 도입을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51.7%)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이 도입 이전 56.2%였으나 도입 이후 50.0%로 감소한 준정부기관 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도입 이전 52.2%에서 도입 이후 56.5%로 증가한 공기업 집단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K-IFRS 도입 시 “회계 전문인력 부족”과 “도입 준비기간 부족”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선택하였고, 특히 공기업들의 경우 준정부기관들에 비해 “초기도입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FRS 도입 이후 공공기관들은 “재무정보의 유용성(회계정보의 질)”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기관 상호간 비교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는 반면,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공시량 증가”로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부분과 “과거 재무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된 점은 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2. K-IFRS 도입 효과 및 영향 분석

설문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공공기관 K-IFRS 도입 효과 및 영향과 관련한 12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첫 번째 카테고리의 1-4번 질문 ‘K-IFRS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와 1-5번 질문 ‘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과 맞물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내용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경영성과, 재무건전성 등)가 내부정보이용자(경영진, 관리자 등)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응답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그저 그렇다”(43.7%)와 “그렇다”(42.5%)는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6.9%), “전혀 그렇지 않다”(4.6%), “매우 그렇다”(2.3%)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된 회계기준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43.7%)도 있지만 대체로 유용한 정보라는 의견(44.8%) 또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면, 공기업은 “그렇다”(47.8%), “그저 그렇다”(43.5%), “그렇지 않다”(8.7%)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준정부기관은 “그저 그렇다”(43.8%), “그렇다”(40.6%), “그렇지 않다”(6.3%)와 “전혀 그렇지 않다”(6.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공기업 집단에서 내부정보이용자 측면의 회계정보가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준정부기관에 비해 공기업 내에서 K-IFRS 정보이용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윤성·이현아(2016)의 연구에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공기업에서 긍정적 응답이 약간 높게 나왔는데, K-IFRS 적용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정확성 증가의 기대가 K-IFRS 정보이용 활용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회계정보의 유용성(usefulness) 및 질적 특성의 변화는 작성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

또한 하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의 인식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응답자 집단을 담당업무별로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재무, 예산, 평가 및 감사 등)로, 대리급 이하의 하위관리자와 팀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담당업무별 구분에 의한 내부정보이용자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회계부서의 경우 “그저 그렇다”(53.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36.2%), “전혀 그렇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회계부서는 “그렇다”(55.2%)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24.1%), “그렇지 않다”(13.8%)의 응답률을 보여 직접적인 내부정보이용자인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위에 따른 분석결과는 하위관리자의 경우 비회계부서와 유사한 “그렇다”(46.2%), “그저 그렇다”(42.3%)의 응답 순이며, 중간관리자는 회계부서와 유사하게 “그저 그렇다”(45.7%), “그렇다”(37.1%) 순의 응답결과를 보였다.

〈표 9〉 K-IFRS 회계정보의 유용성(내부정보이용자 측면)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3	42.5	43.7	6.9	4.6
기관	공 기 업	—	47.8	43.5	8.7	—
	준정부기관	3.1	40.6	43.8	6.3	6.3
부서	회계부서	1.7	36.2	53.4	3.4	5.2
	비회계부서	3.4	55.2	24.1	13.8	3.4
직위	중간관리자	2.9	37.1	45.7	8.6	5.7
	하위관리자	1.9	46.2	42.3	5.8	3.8

두 번째 질문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외부정보이용자(상위기관, 관련기관 등) 의사결정(경영평가, 예산배정 등)에 더욱 유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 공공기관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렇다”(44.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그저 그렇다”(40.2%)였다. 다음은 “그렇지 않다”(6.9%), “매우 그렇다”(5.7%)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누어 분석하면, 공기업은 “그렇다”(47.8%), “그저 그렇다”(34.8%), “그렇지 않다”(17.4%) 응답 순이며, 준정부기관 역시 “그렇다”(43.8%), “그저 그렇다”(42.2%)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세 번째 많은 응답이 “매우 그렇다”(7.8%)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기업의 경우 K-IFRS 회계정보가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작성된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준정부기관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7.4%나 된다는 사실로 기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일부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회계부서는 “그저 그렇다”(46.6%), “그렇다”(41.4%), “그렇지 않다”(8.6%)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비회계부서는 “그렇다”(51.7%), “그저 그렇다”(27.6%), “매우 그렇다”(13.8%)의 응답 순으로 두 번째 질문인 외부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의 유용성 측면에서도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더 유용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구분한 분석결과에서는 하위관리자의 경우 유용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55.7%였으나, 중간관리자의 경우 42.9%로 조금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실무자들은 앞선 1-4번 질문(K-IFRS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응답으로 “재무정보의 유용성 증가(30.7%)”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2-1번과 2-2번 질문을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실무자들은 내부정보이용자(44.8%) 보다 외부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좀 더 유용해졌다(50.5%)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K-IFRS 회계정보의 유용성(외부정보이용자 측면)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5.7	44.8	40.2	6.9	2.3
기관	공 기 업	—	47.8	34.8	17.4	—
	준정부기관	7.8	43.8	42.2	3.1	3.1
부서	회계부서	1.7	41.4	46.6	8.6	1.7
	비회계부서	13.8	51.7	27.6	3.4	3.4
직위	중간관리자	8.6	34.3	42.9	8.6	5.7
	하위관리자	3.8	51.9	38.5	5.8	—

세 번째 질문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이전에 비해 숨김과 편의가 없이 좀 더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정보의 충실한 표현, 즉 신뢰성과 관련한 질문이다. 응답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그렇다”(49.4%)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여 공공기관 회계실무자들은 K-IFRS 도입 이후 신뢰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응답으로는 “그저 그렇다”(32.2%), “그렇지 않다”(9.2%), “매우 그렇다”(6.9%) 순이었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은 신뢰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인 “그렇다”는 응답이 6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21.7%), “그렇지 않다”(17.4%)의 응답 순이었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그렇다”(45.3%), “그저 그렇다”(35.9%), “매우 그렇다”(9.4%)의 순으로 응답하여 준정부기관 보다 공기업 집단에서 K-IFRS 도입 이후 더욱 신뢰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공기업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공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의 개선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응답순서를 보였는데, 회계부서는 “그렇다”(44.8%), “그저 그렇다”(32.8%), “그렇지 않다”(10.3%) 순의 응답률을 보였고, 비회계부서의 경우도 “그렇다”(58.6%), “그저 그렇다”(31.0%), “그렇지 않다”(6.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좀 더 K-IFRS 도입 이후 신뢰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부서에 비해서 비회계부서는 K-IFRS 도입 후 공정가치 평가를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보비대칭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만 반영하여 신뢰성 증가에 대해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위에 따른 분석결과로는 하위관리자의 경우 신뢰성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65.8%인데 반해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는 42.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계정보의 직접적인 작성과 활용도가 높은 대리급 이하의 하위관리자 집단에서 신뢰성 증가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K-IFRS 회계정보의 신뢰성(표현의 충실성)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6.9	49.4	32.2	9.2	2.3
기관	공 기 업	—	60.9	21.7	17.4	—
	준정부기관	9.4	45.3	35.9	6.3	3.1
부서	회계부서	8.6	44.8	32.8	10.3	3.4
	비회계부서	3.4	58.6	31.0	6.9	—
직위	중간관리자	11.4	31.4	42.9	11.4	2.9
	하위관리자	3.8	61.5	25.0	7.7	1.9

앞선 1-4번 질문(K-IFRS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과 1-5번 질문(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의 응답결과로 볼 때,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로 “기관 상호간 비교가능성 증가(25.2%)”와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과거 재무정보와 비교가능성 저하(17.9%)”를 각각 세 번째 순위로 선택하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를 2-4번(기관 간)과 2-5번(기간별)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은 K-IFRS 도입 이후 동종 또는 유사 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설문지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 “그렇

다”가 49.4%로 가장 많아 많은 공공기관들이 K-IFRS 도입 이후 유사 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28.7%), “매우 그렇다”(11.5%), “그렇지 않다”(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합할 경우 61.0%로 나타남에 따라 K-IFRS 도입 이후 기관 간의 비교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공기업은 “그렇다”(52.2%), “그저 그렇다”(26.1%), “그렇지 않다”(13.0%), “매우 그렇다”(8.7%) 응답 순이며, 준정부기관은 “그렇다”(48.4%), “그저 그렇다”(29.7%), “매우 그렇다”(12.5%), “그렇지 않다”(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각각 60.9%로 동일하게 나타나 두 집단 모두 K-IFRS 도입 이후 기관 간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추가로 회계부서,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에서 회계부서는 “그렇다”(53.4%), “그저 그렇다”(27.6%), “그렇지 않다”(8.6%) 순으로 응답하였고, 비회계부서는 “그렇다”(41.4%), “그저 그렇다”(31.0%), “매우 그렇다”(2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답변 또한 회계부서 60.3%, 비회계부서 62.1%의 응답률로 앞선 분석과 유사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하위관리자는 69.2%의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나, 중간관리자 집단은 48.6%의 긍정적 응답을 보여 상호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으로 “그저 그렇다”(40.0%)는 중립적 응답을 선택하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표 12〉 K-IFRS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기관 간)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1.5	49.4	28.7	8.0	2.3
기관	공 기 업	8.7	52.2	26.1	13.0	—
	준정부기관	12.5	48.4	29.7	6.3	3.1
부서	회계부서	6.9	53.4	27.6	8.6	3.4
	비회계부서	20.7	41.4	31.0	6.9	—
직위	중간관리자	22.9	25.7	40.0	8.6	2.9
	하위관리자	3.8	65.4	21.2	7.7	1.9

다음의 다섯 번째 질문 역시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K-IFRS 도입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으로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결과로는 앞선 기관 간 비교가능성 응답결과와 동일하게 “그렇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34.5%), “그렇지 않다”(11.5%)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네 번째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률(61.0%)에 비하면 다소 낮은 긍정적인 응답률(49.4%)을 보여 공공기관 회계실무자들은 기관 간 비교가능성 보다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의 응답률을 비교하면, 공기업은 “그저 그렇다”(47.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 “그렇다”(39.1%), “그렇지 않다”(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그렇다”(48.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29.7%), “그렇지 않다”(12.5%) 순으로 응답하여 집단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종합하면 K-IFRS 도입 이후 기간별 비교가능성은 공기업 보다는 준정부기관 집단에서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할 경우 회계부서는 “그렇다”(43.1%)에 이어 “그저 그렇다”(34.5%), “그렇지 않다”(15.5%)의 응답 순이었으며, 비회계부서는 “그렇다”(51.7%), “그저 그렇다”(34.5%), “매우 그렇다”(6.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 간 긍정적인 응답률을 비교할 때, 회계부서(44.8%)에 비해 비회계부서(58.6%) 집단에서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른 분석결과는 앞선 기관 간 비교가능성 항목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하위관리자는 63.4%의 긍정적인 응답을, 중간관리자는 48.6%의 긍정적 응답과 함께 51.4%의 “그저 그렇다”라는 중립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리급 이하 하위관리자 집단에 비해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집단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하여 더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표 13〉 K-IFRS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기간별)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3.4	46.0	34.5	11.5	4.6
기관	공 기 업	—	39.1	47.8	8.7	4.3
	준정부기관	4.7	48.4	29.7	12.5	4.7
부서	회계부서	1.7	43.1	34.5	15.5	5.2
	비회계부서	6.9	51.7	34.5	3.4	3.4
직위	중간관리자	2.9	25.7	51.4	14.3	5.7
	하위관리자	3.8	59.6	23.1	9.6	3.8

한편 선행연구(박경진 외 2011 ; 이호영 외 201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에 의하면 K-IFRS 도입 이후 동일기관 내 기간별 비교가능성은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응답분석 결과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화 된 시점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으로 응답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그렇다”로 57.5%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18.4%), “매우 그렇다”(14.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은 “그렇다”(56.5%), “그저 그렇다”(21.7%), “매우 그렇다”(17.4%) 순으로 나타났고, 준정부기관 또한 “그렇다”(57.8%), “그저 그렇다”(17.2%), “매우 그렇다”(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두 집단 간 포인트의 차이만 다소 존재할 뿐, 응답률의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에서 회계부서의 경우, “그렇다”(51.7%), “그저 그렇다”(20.7%), “매우 그렇다”(15.5%)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비회계부서는 “그렇다”(69.0%),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는 동일한 13.8% 순으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에서도 회계부서(67.2%) 보다 비회계부서(82.8%) 집단의 응답률이 크게 높아 K-IFRS 도입 이후 느끼는 회계정보의 적시성은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위에 따른 분석에서는 하위관리자(73.0%)와 중간관리자(71.4%) 모두 유사하게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K-IFRS 적용 후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4〉 K-IFRS 회계정보의 적시성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4.9	57.5	18.4	6.9	2.3
기관	공 기 업	17.4	56.5	21.7	4.3	—
	준정부기관	14.1	57.8	17.2	7.8	3.1
부서	회계부서	15.5	51.7	20.7	8.6	3.4
	비회계부서	13.8	69.0	13.8	3.4	—
직위	중간관리자	20.0	51.4	20.0	5.7	2.9
	하위관리자	11.5	61.5	17.3	7.7	1.9

일곱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에서 작성된 회계정보를 외부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써 이해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이다. 설문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결과, “그렇다”(36.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29.9%)가 많았고, 뒤를 이어 “그렇지 않다”(19.5%), “매우 그렇다”(11.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외부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은 공공기관 K-IFRS 도입 이후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공기업의 경우 “그렇다”(34.8%), “그저 그렇다”(30.4%), “그렇지 않다”(17.4%), “매우 그렇다”(13.0%)의 순이며, 준정부기관 또한 “그렇다”(37.5%), “그저 그렇다”(29.7%), “그렇지 않다”(20.3%), “매우 그렇다”(10.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결과, 회계부서는 “그렇다”(39.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25.9%), “그렇지 않다”(20.7%), “매우 그렇다”(12.1%)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회계부서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37.9%)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그렇다”(31.0%), “그렇지 않다”(17.2%), “매우 그렇다”(10.3%) 순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K-IFRS 도입 이후 외부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비회계부서(41.3%)에 비해 회계부서(51.8%) 집단에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위구분을 통한 분석결과는 하위관리자의 44.2%, 중간관리자의 54.2%가 이해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간관리자 집단에서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IFRS 적용에 따른 이해가능성의 저하가 정보이용자인 비회계부서 보다 정보작성자인 회계부서에서 더 높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 중 하나로 준정부기관 중 1곳의 실무자들과 별도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관계부처나 국회 등 외부정보이용자의 경우 회계전문성이 낮아 새롭게 작성된 재무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한동안 필요했었다는 보충적인 응답사유를 확인하였다.

〈표 15〉 K-IFRS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저하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1.5	36.8	29.9	19.5	2.3
기관	공 기 업	13.0	34.8	30.4	17.4	4.3
	준정부기관	10.9	37.5	29.7	20.3	1.6
부서	회계부서	12.1	39.7	25.9	20.7	1.7
	비회계부서	10.3	31.0	37.9	17.2	3.4
직위	중간관리자	17.1	37.1	20.0	20.0	5.7
	하위관리자	7.7	36.5	36.5	19.2	—

다음으로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의 질문 문항들은 재무회계 개념체계 중 ‘유용한 재무

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여덟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권이 증대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으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설문 분석결과 공공기관들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 응답으로는 “그렇지 않다”(21.8%)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민간기업과 달리 IFRS의 특징 중 하나인 기업의 회계처리 재량권이 그다지 증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순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인 응답 결과는 공기업이 “그저 그렇다”(60.9%), “그렇지 않다”(26.1%), “그렇다”(13.0%) 순으로 응답하였고, 준정부기관은 “그저 그렇다”(56.3%), “그렇지 않다”(20.3%), “그렇다”(15.6%) 순이다.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결과, 회계부서는 “그저 그렇다”(55.2%), “그렇지 않다”(24.1%), “그렇다”(15.5%) 순이었고, 비회계부서 또한 “그저 그렇다”(62.1%)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17.2%), “그렇다”(1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위를 구분한 분석결과 또한 앞선 분석의 결과 치와 일치하였는데, 각각의 집단 모두에서 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 재량권은 증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연도별 예산집행지침이나 별도의 회계처리 보완기준 등의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는 달리 회계처리의 재량권이 증대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선 2-4번 질문에서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증대했다는 응답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당초 대다수 전문가들은 K-IFRS가 도입되면 회계처리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되지 않아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증대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6> 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 재량권 증대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3	14.9	57.5	21.8	3.4
기관	공 기 업	—	13.0	60.9	26.1	—
	준정부기관	3.1	15.6	56.3	20.3	4.7
부서	회계부서	—	15.5	55.2	24.1	5.2
	비회계부서	6.9	13.8	62.1	17.2	—
직위	중간관리자	2.9	5.7	62.9	25.7	2.9
	하위관리자	1.9	21.2	53.8	19.2	3.8

아홉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이 기관의 회계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증가시켰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으로 아무리 유용한 회계정보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비용대비 효익을 고려해

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전체 공공기관 응답 분석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28.7%), “매우 그렇다”(8.0%) 및 “그렇지 않다”(8.0%)는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관리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긍정의 답변이 전체의 63.2%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0% 뿐이었다는 사실로 볼 때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 처리와 관련된 비용증가는 공공기관 모두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응답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기업은 “그렇다”(60.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각각 13.0%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렇다”(53.1%)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34.4%)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두 집단 간 응답률이 유사했는데, 응답률은 “그렇다”(회계부서 53.4%, 비회계부서 58.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그저 그렇다”(회계부서 27.6%, 비회계부서 31.0%)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직위에 따른 분석결과로는 하위관리자의 57.7%, 중간관리자의 71.4%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정보처리 관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팀장급 이상에서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는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원칙중심으로,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여 여전히 회계대리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윤성·이현아 2016).

<표 17> K-IFRS 도입으로 회계정보 처리비용 증가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8.0	55.2	28.7	8.0	—
기관	공 기 업	13.0	60.9	13.0	13.0	—
	준정부기관	6.3	53.1	34.4	6.3	—
부서	회계부서	10.3	53.4	27.6	8.6	—
	비회계부서	3.4	58.6	31.0	6.9	—
직위	중간관리자	5.7	65.7	22.9	5.7	—
	하위관리자	9.6	48.1	32.7	9.6	—

다음 열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질문으로 앞선 1-5질문(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항목이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8>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에 예상대로 “그렇다”는 응답이

5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21.8%), “매우 그렇다”(17.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가중되었다는 긍정의 답변이 전체의 75.8%로 그렇지 않다(2.3%)는 답변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들은 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가 복잡해졌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면, 공기업은 “그렇다”(60.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매우 그렇다”(21.7%), “그저 그렇다”(13.0%) 순이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그렇다”(57.8%), “그저 그렇다”(25.0%), “매우 그렇다”(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긍정의 답변이 공기업은 82.6%, 준정부기관은 73.4%로 공기업 집단에서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두 집단 간 응답률이 유사했는데, “그렇다”(회계부서 56.9%, 비회계부서 62.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부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저 그렇다”가 동일한 20.7%였으며, 비회계부서는 “그저 그렇다”(24.1%), “매우 그렇다”(10.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위를 구분한 분석 또한 하위관리자의 75.0%, 중간관리자의 77.2%가 K-IFRS 도입 이후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가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기존의 K-GAAP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한 규정중심인데 반해 K-IFRS는 원칙중심으로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었고,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등 기준체계가 상당수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표 18〉 K-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의 복잡성 가중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7.2	58.6	21.8	2.3	—
기관	공 기 업	21.7	60.9	13.0	4.3	—
	준정부기관	15.6	57.8	25.0	1.6	—
부서	회계부서	20.7	56.9	20.7	1.7	—
	비회계부서	10.3	62.1	24.1	3.4	—
직위	중간관리자	8.6	68.6	22.9	—	—
	하위관리자	23.1	51.9	21.2	3.8	—

열한 번째 문항은 K-IFRS 도입으로 인한 공시횟수와 공시량의 증가로 관련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을 증가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응답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다. 분석결과, “그렇다”

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 24.1%, “그저 그렇다”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는 점으로 공공기관 모두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준정부기관 보다는 공기업 집단에서 K-IFRS 도입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량 증가에 대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 하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집단 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회계부서 82.8%, 비회계부서 79.3%, 하위관리자 84.6%, 중간관리자 77.1%가 K-IFRS 도입으로 인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는 K-IFRS의 경우 기관의 사업보고서, 분기 및 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해야 하며, 기존에는 공시사항이 아니었던 공정가치 관련 정보들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에 따라 공시빈도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9〉 K-IFRS 도입으로 담당자 업무량 증가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4.1	57.5	18.4	—	—
기관	공 기 업	21.7	69.6	8.7	—	—
	준정부기관	25.0	53.1	21.9	—	—
부서	회계부서	25.9	56.9	17.2	—	—
	비회계부서	20.7	58.6	20.7	—	—
직위	중간관리자	20.0	57.1	22.9	—	—
	하위관리자	26.9	57.7	15.4	—	—

마지막 열두 번째 문항은 재무회계 개념체계 중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K-IFRS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이 책정되는 관계로 새로운 제도 등의 도입 시 각 기관들은 경영평가 지표와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K-IFRS 도입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특히 경영성과 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설문 분석결과는 <표 20>과 같이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3.7%로 가장 많았으나, 영향을 주었다는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도 37.9%에 달해 K-IFRS 도입이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일부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그저 그렇다”(공기업 52.2%, 준정부기관 40.6%), “그렇다”(공기업 39.1%, 준정부기관 37.5%)에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

다. 이를 통해 K-IFRS 도입으로 인한 경영평가와의 관계는 공기업(43.4%)에 비해 준정부기관(48.4%) 집단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를 구분한 분석결과, 회계부서는 “그저 그렇다”(44.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다”(32.8%), “그렇지 않다”(12.1%) 순이었으나, 비회계부서의 경우 “그렇다”(48.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41.4%), “매우 그렇다”(6.9%) 순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응답결과를 통해 기관의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회계부서 보다는 작성된 정보를 이용하는 비회계부서에서 K-IFRS 도입 이후 경영평가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위를 구분한 분석결과는 하위관리자의 48.1%, 중간관리자의 45.7%로 두 집단 모두 유사한 비율로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 또한 하위관리자 44.2%, 중간관리자 42.9%로 상당히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FRS 적용이 경영평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국회예산정책처 2014 ; 고윤성 · 이현아 2016)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일부 공공기관에는 도입 초기의 이해가능성과 준비 부족에서 벗어나 안착 단계에 접어들어 K-IFRS 적용이 경영평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20〉 K-IFRS 도입으로 인한 경영평가의 영향

(단위 :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9.2	37.9	43.7	9.2	—
기관	공 기 업	4.3	39.1	52.2	4.3	—
	준정부기관	10.9	37.5	40.6	10.9	—
부서	회계부서	10.3	32.8	44.8	12.1	—
	비회계부서	6.9	48.3	41.4	3.4	—
직위	중간관리자	11.4	34.3	42.9	11.4	—
	하위관리자	7.7	40.4	44.2	7.7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실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 도입 이후 회계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K-IFRS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간 비교가능성 증대」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K-IFRS 도입목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회계 관련 실무자들은 K-IFRS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K-IFRS 도입 이후 「재무정보의 유용성(회계정보의 질)」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기관 상호 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회계정보 외부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은 K-IFRS 적용 후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K-IFRS 도입 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회계 전문인력 부족」과 「도입 준비기간 부족」을 지적했으며, K-IFRS 도입 이후 부정적인 영향으로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공시량 증가」로 인한 담당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또한 K-IFRS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로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보완기준 마련(28.2%)」,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구분한 회계기준 적용(22.1%)」, 「실효성을 바탕으로 K-IFRS 전면적용 재검토(19.0%)」,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K-IFRS 선택적용 허용(16.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혹은 K-IFRS 적용을 기타 공공기관이나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새로운 기준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유용성, 즉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설문결과 도출을 위해 응답자 집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 하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응답결과를 보면 공기업 보다는 준정부기관, 회계부서 보다는 비회계부서, 중간관리자 보다는 하위관리자 집단에서 전반적인 도입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내·외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내부정보이용자 보다는 외부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하게 작성되고 있었다. 둘째, K-IFRS 도입 이후 기관의 회계정보가 이전에 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성 증가에 대한 인식은 준정부기관 보다는 공기업 집단에서, 회계부서 보다는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중간관리자 보다는 하위관리자 집단에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IFRS 도입 이후 기관 간,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더욱 증가되었다. 이는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에 비해 대리급 이하 하위관리자 집단에서 더욱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적시성은 향상되었으나, 외부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정보의 적시성은 회계부서 보다 비회계부서 집단에서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해가능성은 오히려 회계부서 집단에서 더 저하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K-IFRS 도입 이후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재량권은 증대되지 않았다.

여섯째, K-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정보 처리비용이 증가되었다. 특히 규모가 크고 도입비용 지출이 많았던 공기업의 관리비용 증가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회계처리의 복잡성과 담당자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끝으로, K-IFRS 도입이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일부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준정부기관에서 좀 더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이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여 K-IFRS 도입효과를 민간 상장기업과 같이 시장반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 회계 관련 실무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K-IFRS 도입 이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여 도입효과를 살펴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질적 특성의 변화를 심도 있게 측정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수조사 하였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 중간관리자와 하위관리자로 구분한 추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K-IFRS 도입 이후 기관 간,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음을 밝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K-IFRS 도입이 경영평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K-IFRS 도입에 따른 이해가능성이 저하된 원인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회계처리 재량권의 확대로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산출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미친 영향이 회계부서와 비회계부서 간에 인식차이가 있음을 밝힌 점은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K-IFRS 도입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직원으로만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K-IFRS로 작성된 공공기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외부정보이용자들을 설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K-IFRS 도입효과를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윤성 · 이현아. 2016.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과 향후 방향”.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 45-82.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공기업 · 준정부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효과성 분석”. 연구보고서.
- 권대현 · 박진하. 2011.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 2008년 A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375-405.
-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발표”. 보도자료(2009.6.17.).
- 김문철 · 안영균 · 정혜영. 2006.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165-194.
- 김수성 · 최원석. 2016. “준정부기관의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세무회계 이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157-187.
- 박경진 · 유영태 · 노민영. 2011. “IFRS 적용이 기업의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 33-64.
- 박성환 · 강윤식 · 김유찬. 2015. “IFRS 도입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실제 지표 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1호 : 389-417.
- 박연희 · 조석희 · 박성진. 2013. “준정부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사례 : A 공단을 중심으로”. KBR 제17권 제1호 : 1-39.
- 안진회계법인. 2009.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안 보고서”. 연구보고서
- 이호영 · 강민정 · 장금주 · 이홍섭. 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실태분석”.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307-342.
- 장지인. 2010.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KIPF 공공기관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 4-21.
- 정성호. 2013. “공공기관의 K-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부회계연구 제11권 제2호 : 33-59.
- 최대규 · 이동연. 2008.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제6권 제2호 : 3-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 IFRS 도입 영향 및 기대효과”. 공공기관연구 제13권 제3호.
- Trewavas, K. B. Redmayne, N. Laswad, and Fawzi. 2012. The Impact of IFRS Adoption on Public Sector Financial Statements.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22(1) : 86-102.

Effectiveness of K-IFRS Adopted in Public Institutions

- A Survey of Practitioners' Perceptions -

Tammy Chung* · Jihyun Park**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a survey of accounting practitioners in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K-IFRS adoption in the public sector between 2011 and 2013 and highlights areas for further development.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has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quality provided by those organizations.

A survey was sent to 110 practitioners working directly/indirectly in accounting, finance, and budgeting in public institutions from 19 August 2016 to 21 September 2016.

The findings show that practitioners have more positive views about K-IFRS after its implementation, and there are improvements in the usefulness of financial information,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mparability across organizations. Some of the problems in applying K-IFRS in public organizations include lack of personnel with appropriate accounting expertise, insufficient preparation time, heavy workloads, complex accounting procedures, and increased disclosures.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address these issues. In particular,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build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for different entity types and allow selective implementation of K-IFRS for small organizations.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accounting experts, expand and strengthen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n K-IFRS, and undertake various efforts to improve and reconstruct the accounting system.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tending the subject of research to public organizations and focusing on the views of the very practitioners of accounting on the adoption of K-IFRS. Existing studies have collected data on public organizations but only on a limited scale and have drawn conclusions on the indirect measurements of stock price reactions to the variation in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This study is able to focus more directly on the changes in information quality following the K-IFRS adoption because it draws on data from an exhaustive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tmchung@mju.ac.kr, First Author

** Team manager, Gangseo gu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eoul, parkjh@gssi.or.kr,
Corresponding Author

survey, which is conducted after years of transition period, and extends the analysis by subdividing the sample into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unting and non-accounting departments, and middle managers and low-level managers. The survey result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government officials, who supervise the accoun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es i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who promote the expansion of K-IFRS to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ractitioners.

〈Key words〉 K-IFRS, Public corporation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